

외국 용어의 우리말 정착 시급

근세에 이르러 서양인들이 기계문명을 일으켜 선진(先進)하고 있기에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짙으나, 우리 과학기술인은 그들의 사고체계에 허점이 많음을 간파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올바른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하여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작금임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훌륭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으면서 한시 바빠 서양 과학기술의 장점을 아우른다면, 비록 통일과 세계화의 대업을 동시에 추슬러야 하는 엄청난 현실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반드시 그 근간 철학과 기계를 다시금 세상에 널리 펼쳐 전 인류에 공헌할 수 있음과 그러한 근본이 되어있는 후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외래어 횡행

우리 한민족이 서양문물에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한지 백수십년이 흘렀고, 그 동안 35년간의 일제 강압에서 벗어나 애닦게 남북으로 분단된지도 어언 반세기가 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국문물과 함께 우리 사회에 들어온 그들의 말과 전문용어들이 우리 말로써 치환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고 검증되어질 시간이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해 우리 문화로 순화되거나 정착되지 못한 채, 외래어라는 미명 아래

외국어가 과다 사용되어 결국 어류문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슬픈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또한 남북간 괴리도 점차 증폭되고 있다.

무심코 쓰는 말 한마디가 이를 반증한다. 영터리 서양어 비슷하게 지은 약이름이 횡행하더니 그 약습의 연장으로 '핸드폰' 등 영어 아닌 가짜영어를 만들게까지 되었다. 또한 '데카, 에끼쓰, 스킨로폴' 등 국적 모를 단어들을 외국인에게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면서 그저 상대방이 눈치껏 해득해 주기를 바라다면 이는 매우 딱한 처지가 아닌가. '다시, 치킨, 케스천' 등은 부정확한 표기와 잘못된 발음유도의 표본이다. 게다가 식자들의 행태를 보면, 대학 또는 전문 학회에서 'seminar'와 'workshop'를 열면서 거기서 사용하는 어휘의 반은 영어가 아니던가! 외식집 차림판에 보이는 '프레린 필리 치즈 스테이크 레퍼, 찹하우스 힐렛미농, 시푸드 마리나라' 등, 그리고 영화 광고판에 나타나는 '어바웃 어 보이'라든가 '로드 투 퍼디션' 등과 같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외국말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전달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 결국 청소년들이 별 의미도 없는 노랫말을 만들어 천연덕스레 부르며 환호하게끔 만들고 있는 현실사회가 사뭇 걱정스럽다.

무릇, 언어는 사고의 틀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강력한 문화적 효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우리말과 외국어를 섞어 쓰면 우리말의 발음이나 문법체계가 훼손되고 생각의 흐름을 혼란스럽게 한다. 특히 과학기술 용어를 외국어로 쓰는 것은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편리하겠으나 일반인이나 새로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며, 독창적 사고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더군다나, 외국어 발음의 100% 정확한 표기는 불가능하기에, 틀린 외국어 발음을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그릇된 일들이 벌어진다. 처음에 잘못 배운 발음은 원어 사용자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빌미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위를 손상시킨다. 심지어는 외래문화에 의존 내지는 숭상하는 악폐가 나타나고 급기야는 자주정신을 말살시키게 된다. 국가차원에서 볼 때, 이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다. 후에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담보한 엄청난 문화적 갈등과 국력소모가 불가피하게 된다. 프랑스를 위시한 서양인들이 세계화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각자 자기네 언어 지키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까닭은 자국어와 자주정신을 잃은 소수민족이 겪는 사회적 갈등과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과학기술용어를 외국어로 쓰는 것은 익숙한 사람에게는 편리하겠으나 일반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며 독창적 사고를 통한 과학기술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여러 분야의 외국 용어들을 한시 바빠 우리말로 다듬어 정착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李義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기원전 22세기 동아세아 상황을 살펴 『檀檀古記』 계연수 편, 임승국 역주, 정신세계사, 1986년) 보면, 초대 한웅시대(기원전 39세기)에 신지 혁덕이 창시한 진서(眞書)만으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불쌍히 여긴 3세 단군 가락께서 '소리글을 만들어 보완하라'는 명을 내리시자 을보록 박사가 '정음 38자'를 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史實)은 한족(漢族)이 내세우는 창힐의 설화나 은대의 갑골문보다 훨씬 앞선 것이며, 뜻글자와 한글 비슷한 글자들이 함께 써어있는 갑골 유물들이 뚜렷한 증거(『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 정연중, 도서출판 넥서스, 1996년)가 된다. 이는 바로 훈민정음 서문의 세종대왕 정서와 일치하며, 다만 모음의 형상에 따른 위치 확정과 한 음절의 초·중·종성을 묶어 한 글자로 표기함으로써 독해능을 높인 점이 훈민정음의 독창성으로 판단된다.

애굽(Egypt) 글자문명에 영향을 미친 수미이(Sumer)는 환인의 12환국 중 하나로 6천년 전에 아랍지방까지 이동하여 살다가, 2천년 후 일부는 돌아왔고 일부는 유대문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대륙에서 8600년 반도에서 600년』 이병화, 한국방송출판, 2002년)된다. 구약성경 창세기는 『符都誌』(박계상(김은수 역주), 가나출판

사, 1986년)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는 환인 이래 자그만치 9천2백년간 '홍익인간' 가르침을 이어온 문화민족으로, 그 천손 범통은 위로 유인, 황궁, 궁회, 마고까지 연결되어, 옛 일을 얘기하자면 무엇인들 문화중심인 우리 선조들이 최초가 아니라! 그리고 그 전통은 근세 세종대왕 때까지 대륙에 기반을 갖고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사실(史實)이 왜곡된지 5백여년, 우리 사회에는 갖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소위 지식인들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 우리는 글도 없던 민족'이라 하니, 한편 한글을 찬양하는 듯하지만 실은 공공연히 자기 민족을 비하하고 어처구니없이 조상의 업적을 폄하하는 짓이다! 흔히 '한자'라 부르는 뜻글자를 중국글자라 주장함은 잘못이며, 이는 마치 우리를 중국인(또는 Chinese)이라 부르는 모순과 다르지 않다. 부여 조선시대, 하화족 제후국을 합병한 진시황이 글자를 통일할 때 1만자였던 뜻글자는 분명 혁덕 이래 우리 민족 조상들이 만든 것이며, 한대(漢代)에 2만자 추가 조립과정에 공헌한 분들의 자손도 고려로 다시 통합된 것이니, 무모한 한글전용 주장은 현행 맞춤법 정신에도 위배되며 선조들과 거리를 멀게 하는 악폐가 커 진정한 한글 세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대되는 남북용어조사

전문분야에서 외국용어의 영향은 사회의 표피 또는 단순한 물질기술면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암암리에 정신사고적 예측을 심화시켜간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크다. 또한 우리 사회적 현실은 이 문제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한 원어를 분야에 따라 대응하는 우리말을 달리해 쓰는 경우가 많아 국내 학계간 의사전달 조차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남북이 별도의 문화권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맞춤법과 어휘가 달라져 같은 줄기이긴 할지라도 어떤 때는 마치 생소한 외국어처럼 당황스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중국어가 아닌 우리의 뜻글과 소리글 두 가지를 아울러 써야 비로소 온전하고 효율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전용의 폐해로 인하여 수많은 동음이 의어나 불분명한 의미가 속출하여 글 쓰는 이의 세심한 배려없이 오해되는 경우가 잦고 기타 갖가지 말글삶의 문제가 증첩되어 나타나는 등, 추가적 번역작업을 통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만일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한민족 사회는 용어 불통에서 오는 극심한 혼란이 자명하므로,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공동 과학기술용어 비교조사 연구사업'을 3년차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주관하고 있다. 부문별로 1차년도에 물리학과 화학 분야 용어집을 이미 발간하였고, 2차년도에 농학 분야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3차년도 사업(총책임자 박태규 건국대 교수)으로서 전자정보(박찬모 포항공대 교수), 생물(박은호 한양대 교수), 수학(이춘호 호서대 교수), 금속(리의재 생기원 수석박사), 건축(이왕기 목원대 교수) 등 5개 분야의 발간작업을 현재 수행중이며(지질학, 원자력, 기계, 전기통신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명년으로 계획), 북한의 과학기술총연맹과 공동으로 정리 편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과협, 재일 조선인 과협 등 제3국 기관을 통한 긴밀한 협조가 주효할 것이다.

용어집의 내용에는 각 표제어로서 남한용어[한국어], 영어, 북한용어[조선어]를 한 묶음으로 하여 현재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록하여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내용물을 전산정보화하고 원반(CD)에 담아 보급하여 편리하게 쓰이도록 할 구상이다. 이로 인해 북한 과학기술인들과의 실질적인 교류와 활발한 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과학기술용어 통합의 전초적 성격의 이 비교조사 작업은 통일 후에 그 가치가 뚜렷이 발휘될 것이며, 우리 한민족의 독자적 과학기술 발전에 주춧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아직은 부분적이긴 하나, 이로써 해

당 부문별 용어가 우리말로 쓰이게 하고 나아가 일반국어 순화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진한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물리학회에서 이미 누리망(internet)에 '물리용어방' (<http://www.mulli.kps.or.kr>)을 설치하였으며 전문용어공학연구소(<http://www.korterm.or.kr>)에서 기초적이긴 하나 종합적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고, 그 외에도 전산정보학회, 금속학회, 토목학회 등에서도 기본적으로 분야별 용어집을 발간해 놓은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회에서 영어만을 사용하여 내국인을 위한 학회지를 만든다든가 한글 전용이라든가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어에 한글 옷만 입혀놓는 관행 등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각 학회에서는 자체적 규정을 뚜렷이 하여 위반한 글은 신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우리말 대응어를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각종 분야의 외국 용어들을 한시 바빠 우리말로 다듬어 정착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국가적 사업은 당연히 국어정책 당국과 국어학자들이 앞장서야 하나, 특히 전문용어의 경우는 그들에게 맡겨놓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므로 평소 전문지식인 개개의 노력이 선행되고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수 기본수칙은 세가지로, 순차적으로 정리해보자. 첫째,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외국 용어들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적절한 대응어를 찾아 쓰

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보기: foil ⇒박판지, ionization ⇒전리화, dark space ⇒암부/어둠, fighting ⇒건투, sex ⇒성별, sign ⇒서명) 둘째, 적절한 대응어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본래 뜻을 살려 적절한 말을 지어쓰고 전문학회는 가부간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보기: ion ⇒전리자, cation ⇒양전리자, plasma ⇒전리체, home page ⇒택면) 셋째, 그럴 수도 없을 때라면 당분간 외국용어를 허용하되 가능한 한 원어발음에 가까운 표기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정확한 발음의 한글표기를 함에 있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앞으로 크게 개정을 하거나 남북 공동으로 '외국어휘 한글표기 규정'을 새로 제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단어 다듬기도 중요하지만 실상 이는 기초에 불과한 것이라, 자주성에 기반한 문장 순화가 더 중요함이 반드시 강조되어야겠다. 이렇게 우리말 애용으로 자주정신이 고양되며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독자적 사고가 가능하여 독창적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룬다면, 통일 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국위선양의 기반은 한결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긴밀한 또 하나의 사실은, 고유의 전문용어와 고유명사를 우리의 얼을 담아 세계에 바로 알릴 필요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현행 로마자 표기법도 자주정신을 살려 합리적으로 보완 개정해야 하며, 그리하면 세계적 인류유산으로서 과학적이고 편리한 한글은 자연스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인류에 공헌할 것이다.

우리 과학기술인이 앞장서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㉞